

수소 · UAM · 우주산업 관련 주간정책 동향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중앙	□ 스타트업 병역지정업체 문턱↓...수소전문기업 지정요건 바꾼다(2024-12-05) - 정부가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지방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요건도 완화하기로 결정 - 전문연구요원 확보를 위한 병역지정업체 평가기준에서 특히 실적 산정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소규모 사업체의 제도 도입을 위한 배점을 확대하고 지방기업 우대도 강화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최저 발기인 요건을 현행 전국조합 50명, 지방조합 30명에서 전국조합 30명, 지방조합 20명으로 완화. 조합원의 타 업종 조합 가입 제한도 조정 검토
		□ 한국수소환경협회 창립식 개최(2024-12-06)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그린수소 및 수소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수소환경협회' 창립식을 개최. 윤종수 세계자연보전연맹 이사를 위원장으로 위촉 - 협회는 그린수소 생산·충전 및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목표로 정책제언, 기술개발, 거버넌스 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 특히 수전해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 - 환경부는 2030년까지 30만대의 수소차 보급과 66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성남정수장, 밀양댐, 충주댐에서 수전해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충전시설 설치 사업도 추진 중
	지방	□ 가스·수소·전기 충전 가능, 명촌공영차고지 본격 운영(2024-12-05) - 울산시가 북구 명촌동에 압축천연가스, 수소, 전기 충전이 모두 가능한 친환경 복합 공영차고지를 준공. 총 사업비 154억원이 투입되어 2만2804㎡ 부지에 주차 105면, 본관동, 경비동을 갖춘 시설 조성 - 차고지에는 압축천연가스 충전기 2기, 수소 충전기 3기, 전기 충전기 25기 등을 설치해 친환경 차량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수소 및 전기 충전시설은 민간이 시행 - 도심에 위치한 장점을 활용해 장거리 시내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고 자원을 재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 이달 21일부터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도 시행할 계획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지방	□ 수소도시 도약·생애주기별 교육… 지속가능 미래 설계하는 동해(2024-12-05) - 동해시가 차세대 먹거리로 수소산업을 키워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상을 추진.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내 32만㎡ 부지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2028년까지 총 650억원을 투입하여 진행 - 클러스터는 산업진흥, 기술검증, 기업입주 등 3개 구역으로 구성되며, 산업진흥센터, 안전성시험센터, 실증테스트베드 등이 조성될 예정. 60개 이상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 - 북평일반산업단지 내 경제자유구역 14만7324㎡는 '수소·저탄소 녹색산업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 투자 기업에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완주군에 수소 기관·업체 100여 명 모였다(2024-12-05)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주최한 '수소용품 제조사 기업지원 세미나'가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에서 개최. 완주군, 전북도, 수소안전검사처를 비롯해 수소용품 제조업체 32개사 등이 참여 - 수소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안전기준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해 검사방법, 장비, 관련 기준 등에 대한 제조사 의견을 청취하고, 수소용품 유럽인증 취득 절차와 규제특례 절차 등을 안내 - 완주군은 50만 평 규모의 수소국가산업단지 등 수소산업 관련 인프라 확충과 기업유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1월 완주군에 세계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수소용품 법정검사 및 성능평가 기관을 개소
		□ 경남에너지, 한국가스공사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위탁운영업체 최종 선정 (2024-12-05) - 경남에너지가 창원 거점형 수소생산기지의 안정적 운영과 정상화를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5년간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 내년 1월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 - 한국가스공사는 부산·경상권역에 하루 10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안정적 수소 공급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창원시와 협업해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을 완료 - 경남에너지는 천연가스 원료 공급을 통해 수소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수소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로 수소 전문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
		□ 부산서만 '월세 50억' 수소차 보조금, 판매자 현대에 지급(2024-12-05)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이 지난해 부산시가 보급한 수소승용차 200대 중 148대가 현대자동차가 내부 업무용으로 리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 - 수소차 1대당 구매 보조금은 총 3350만 원으로, 넥쏘 차량 가격의 절반에 달하며, 현대차가 리스한 148대에 대해 부산에서만 49억 5800만 원의 세금이 보조금으로 지급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지방	- 이에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수소승용차 구매지원 예산 67억 원 중 30억 1500만 원을 삭감. 특정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는 형태는 옳바르지 않다는 지적
		□ 제주 수소트램 도입 교통정비 중기계획에 반영(2024-12-05) - 제주도가 제주공항과 신제주, 구도심 구간에 수소트램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23일까지 도청 누리집에서 의견 수렴 - '사람 중심 교통체계', '탄소제로를 향한 친환경 교통', '편리하고 효율적인 연계 교통체계 구축'을 3대 핵심정책으로 제시. BRT 고급화와 양문형 버스 도입도 계획 - 제주공항과 제주항 등을 제1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수소버스와 전기차 보급도 확대할 계획. 스마트 신호시스템 도입으로 교통 혼잡도 해소
		□ 완주군, 환경변화 맞춘 수소산업 현안 공유(2024-12-05)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주최한 '수소용품 제조사 기업지원 세미나'가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에서 개최. 완주군, 전북도, 수소안전검사처, 수소용품 제조업체 32개사 등이 참여 - 수소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안전기준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해 검사방법, 장비, 관련 기준 등에 대한 제조사 의견을 청취하고, 수소용품 유럽인증 취득 절차와 규제특례 절차 등을 안내 -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1월 완주군에 세계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수소용품 법정검사 및 성능평가 기관인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를 개소하고 수소용품 법정검사를 수행 중
		□ 2030년까지 충남 도내에 수소버스 1200대 도입(2024-12-06) - 환경부가 충남 지역 내 수소버스 보급 및 수소충전소 구축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충남,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E&S, IBK투자증권, 충남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참여 - 충남은 2030년까지 도내 버스 1200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버스차고지 내 대용량 수소충전소 67기를 구축할 계획. 수소차 정비서비스센터 유치와 운수사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추진 - 환경부는 충청남도 내 수소버스 보급과 수소충전소 구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하고, 자동차 제작사 등과 협의를 통해 정비시설을 확충할 계획
		□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위해 포럼 개최(2024-12-08) - 전주시와 전북도민일보가 '2024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포럼'을 공동 주최함.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그린수소 관련 최적의 전진기지로 육성되어야 하며,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지방	2050년까지 거대 수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 제1 발제자 이중희 전북대 교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린수소 산업 육성을 적극 주장함. 제2 발제자 이기섭 전주시 주력산업과장은 전주시 수소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육성 지원 방향을 제시 - 패널 토의에서는 전주시 수소산업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전주시는 포럼을 계기로 수소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
		□ 대전 '수소트랩 역세권', 한화 건설부문 '도마 포레나해모로' 선착순 분양 (2024-12-09) - 한화건설이 대전 서구 도마·변동9재정비촉진구역에서 '도마 포레나해모로'를 분양 중임.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랩 도마역 신설로 역세권 가치가 부각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 -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4층, 7개 동, 총 818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568세대가 일반분양됨. 59101㎡의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 -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와 가까워 수혜가 기대되며, 우수한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를 갖춰 주거 여건이 뛰어나. 한화건설만의 차별화된 설계와 시스템으로 높은 상품성을 자랑
		□ 해상풍력·수소항만...충남, 해양도시 '질주'(2024-12-09) - 충남 서해안권이 세계 해양관광 거점 및 신성장산업 중심지로 변모함. 충청남도는 해양신산업 육성 기반을 확충해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 - 보령시는 원산도를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보령신항은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개발될 예정 - 서천군은 장항제련소 일대를 친환경 생태복원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임.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확충에도 나설 방침 - 충남도는 2026년까지 1조2559억원, 2035년까지 13조6343억원을 투입해 해양신산업의 미래를 열어갈 계획임. 서해안권 개발로 충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설정
		□ 군산시, 승용차.버스 겸용 가능 수소충전소 운영자 모집(2024-12-10) - 군산시가 승용차와 버스 겸용이 가능한 수소충전소 운영자를 공개 모집함. 운영자가 부지를 제공하면 시가 60억원을 투입해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운영자에게 위탁하는 방식 - 1500㎡ 이상 부지를 무상 제공할 수 있는 주유소, 충전소 사업자가 신청 대상임. 접수 기간은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로 설정 - 군산시는 이번 사업으로 수소차 이용 시민 편의 증진과 수소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기존 주유소와 충전소의 친환경 연료 공급 시설로의 전환 기회도 될 것으로 예상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자방	□ 충남도, 수소산업 통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될까(2024-12-11) - 충남도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섬. 시군, 기업, 대학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충남 수소산업 육성 세미나' 개최 - 2020년 당진, 보령을 핵심지구로 지정 신청했으나 선도기업 부재, 연관성 부족 등의 사유로 탈락. 2028년까지의 정부 기본계획에 발맞춰 도내 4개 지역에서 기업 발굴, 산업 선정 등을 거쳐 내년 공모 계획 - 도는 전담팀 구성, 지정 용역 추진 등 내년 융복합단지 지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방침. 에너지 산업 육성과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
		□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착공... '도마 포레나해모로' 수소 트램 역세권 수혜(2024-12-11) - 한화건설이 대전 서구 도마동에 분양 중인 '도마 포레나해모로'가 수소 트램 역세권으로 주목받음.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 착공하면서 지하철 개통의 수혜 기대 - 818가구 규모의 단지는 도마네거리에 들어설 트램 도마역과 인접해 역세권 가치 상승 전망.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노선도 단지 인근에 개통 예정 - 도마·변동지구 중심에 위치해 미래가치가 높고 편리한 교통과 우수한 교육 환경 갖춘. 포레나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설계와 시스템도 장점
		□ 창원특례시, 548억원 투자로 항공·우주·수소산업 확장(2024-12-11) - 창원특례시가 3개 기업과 548억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 산업단지 등지에 투자하고 74명의 신규 인력 채용 예정 - 넥스탑코리아는 수소를 활용한 항공우주 핵심 소재 제조 기술 개발을 위해 생산공장 신설. 현진이엔피는 수소 인프라 활용이 용이한 창원으로 생산시설 이전해 사업 확장 계획 - 이레산업은 동전일반산업단지로 사업장 이전하면서 항공·방산 분야로 신규 사업 확장. 창원시는 기업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 강원특별자치도, 「수소기업 지원 설명회」 개최(2024-12-11) - 강원도가 12월 12일 동해에서 수소기업 유치·이전 및 지원 등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소기업 지원 설명회」 개최 예정 - 국내 1호 수소특화단지 유치 이후 입주 희망 기업 대상으로 정부와 도의 수소산업 정책, 지원계획 등을 설명하고, 그간 수소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개인에 도지사 표창 수여 계획 - 윤우영 도 미래산업국장은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지역 수소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지방	□ 남양주시, 3기 신도시 첫 '수소도시' 본격화..."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2024-12-11) - 남양주시가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왕숙2지구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화함. 3기 신도시 최초의 수소도시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들어설 예정 - 시는 '수소 생산 및 공급 설비공사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수소 생산 및 공급망 구축 방안 등을 논의. 주민 체감형 수소에너지 활용사업과 수소경제권 조성이 골자 - 홍지선 남양주 부시장은 수소도시 조성이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 시는 2028년까지 주거, 교통, 수소 생산 등 자원 순환형 친환경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 계획
		□ 제주 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 규제자유특구계획안 의견 수렴(2024-12-11) - 제주도가 '제주 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시스템 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특구계획(안)에 대해 1월 9일까지 의견을 공고 중 - 도는 중기부 후보특구 선정 후 특구사업자 7개사를 선정 완료하고, 현재 규제 신속 확인 절차 진행 중. 최종 지정은 내년 4월경 이뤄질 예정 - 제주의 실증사업은 LOHC 수소 저장·추출 시스템으로 기존 배터리-ESS의 한계 극복이 목표. 특구 지정 시 대규모 에너지 저장·수송, 수소 단가 인하, 잉여 전력 활용 등의 효과 기대
		□ 서산시, '충남 수소산업 육성 세미나' 개최(2024-12-11) - 충남 서산시에서 '충남 에너지 융복합단지 지정'을 위한 첫 걸음으로 '충남 수소산업 육성 세미나' 개최 - 충남도와 단국대가 주최한 행사는 도내 수소산업 육성과 기관별 협력 강화 논의 위해 마련됨.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해 융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공감대 형성 - 충남도와 서산시의 수소산업 육성계획 발표, 운영사례 공유, 기업 애로사항 논의 등이 진행됨. 충남도는 세미나를 바탕으로 세부사업 발굴해 지정 준비할 계획
UAM	중앙	- (해당 없음)
	지방	- (해당 없음)
우주	중앙	□ 탄핵 면한尹...대통령 위원장 'AI·바이오·우주'위원회는 '울스톱' (2024-12-08) - 윤석열 대통령이 직위는 유지하게 됐지만 국가위원회로 출범한 인공지능(AI), 바이오, 우주 등 국가 명운이 걸린 전략기술은 모두 울스톱 상태에 빠짐. 윤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우주	중앙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기초연구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기술연구를 총괄·조정하는 전략기술위원회들의 활동이 중단 - AI기본법 상정이 불확실해지고 내년 예산안 통과도 기약할 수 없게 되어 과학 기술 정책 전체가 멈춰 설 위기에 직면. 우주위원회의 경우 2030년까지 7년간 총 3,80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 추진계획도 차질 - 이미 출범한 AI와 우주위원회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나, 이달 정식 출범을 예고한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출범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 국제협력 프로젝트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
		□ R&D 예산·우주·인선까지... 과학계 덮친 탄핵 재앙(2024-12-09) - 탄핵정국 진입으로 과학기술계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 정부 R&D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815억원 가량이 줄었으며, 특히 민관 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 구축사업은 정부안 70억원 중 63억원이 삭감되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투명 -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AI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의 공식 활동이 중단되고, 12일 예정됐던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에도 제동이 걸림. 특히 이달 말 개최 예정이던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었던 차세대발사체 개발계획과 달 착륙선 계획 등 주요 사안의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 - 과학기술 분야 기관장 인선도 중단되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의 차기 원장 선임이 불투명해짐. 글로벌 기술패권 선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를 맞이한 상황
	지방	□ 우주산업의 새 시대를 여는 대전시(2024-12-05) - 대전시가 소형 발사체 기술 개발의 중심이 되기 위해 '우주발사체 운용능력 검증지원사업'을 본격 추진. 지역 우주기업 3곳(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거창엔지니어링, 넥시스)과 함께 사업 착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부 추진 계획을 논의 - 운용능력 검증 시스템 개발의 성공을 위해 각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발사체 추진체계 성능 시험이라는 핵심 과제 달성을 위한 연구기관과 기업 간의 유기적 연계 방안을 강조 - 2025년까지 발사체 추진체계 검증 시스템 설계와 구축을 완료하고, 2026년에는 시스템을 활용한 통합검증을 마무리할 계획. 이를 통해 대전이 국내 우주산업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할 예정 □ 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기후위성 발사 등 우주산업 중요성 강조(2024-12-05)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제379회 정례회에서 기후위성을 통한 경기도민의 탄소 배출 부담 완화 필요성을 역설. 경기도가 약 1억 3천만 톤의 탄소를 배출하며 이에 따른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이 약 1조 4천82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 - 유럽의 경우 탄소배출권 가격이 한국보다 10배 높은 수준이며, 과학적 데이터 부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후위성 발사는 이러한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우주	지방	문제 해결의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 특히 기후위성 프로젝트는 도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경기도가 우주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기회 - 현재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고해상도 위성 사진은 한 장당 약 600만 원에서 1천만 원에 이르며, 도 전체 면적 촬영에 1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지적. 위성을 직접 보유하면 장기적으로 데이터 확보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정책과 도민 복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
		□ '우주항공 복합도시 심포지엄' 사전서 열려(2024-12-05) - 사전에서 우주항공 복합도시 개발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 류재영 전 국토연구원 본부장 등 우주항공과 도시 개발 전문가 7명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 진행 - 사전시는 지난 5월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용현면 일대 5.6km² 터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도시 개발 계획을 추진 중 -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주항공 복합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향후 도시 개발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
		□ 예천천문우주센터, 세금포인트 사용처로 등록...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2024-12-06) - 예천천문우주센터가 국세청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금포인트 사용 가능 시설로 새롭게 등록. 경북 북부지역 대표 과학관 시설로서 지역 주민들이 세금포인트를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세금포인트 사용 가능 시설은 전국 13개 기관으로, 평화누리캠핑장, 베어트리파크, 청남대, 서산버드랜드, 경주엑스포대공원 등이 포함. 성실 납세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으로 각종 공공 및 민간 서비스 할인에 활용 가능 - 예천천문우주센터는 이번 협약으로 센터 방문 증가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앞으로도 천문우주과학을 친근하게 전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
		□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AI·우주항공·바이오 분야 미래 성장동력 창출 (2024-12-08) -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으로 대구, 경남, 대전을 선정. 선정된 후보지역은 분야별 실증특례 부여를 위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중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예정 - 경남은 지역의 우주산업 성장 동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첨단 위성 개발 전주기 관리 표준절차 및 체계를 마련하고 위성 관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 대전은 바이오제조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생태계 확산을 추진 -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AI 로봇, 우주항공, 바이오제조 분야 신기술 실증사업을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우주	지방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성공 스토리를 써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우주산업 중심지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개발 나선다(2024-12-08) - 경상남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혁신특구에 '차세대 첨단위성 실증'이 선정되어 차세대 첨단위성 개발에 시동을 걸었음. 우주항공청 개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지정 성과를 바탕으로 준비 - 차세대 첨단위성은 궤도상서비스 · 우주쓰레기 처리 · 우주자원 채굴 · 우주 태양광 등의 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 우주 기술 적용 위성. 진주 · 사천시를 거점지역으로 지정하고 경상국립대를 총괄 주관기관으로 선정 - 내년 6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여 동안 차세대 첨단위성 개발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우주소자 · 부품 단위의 국내외 실증을 지원할 계획. 규제 특례가 적용된 경남으로의 국내 우주산업 기업의 유입 효과를 기대
		□ 제주 항공우주산업 도약, 한림공고가 이끈다(2024-12-10) - 제주도가 한림공업고등학교를 통해 항공우주산업 인재 양성에 본격 착수.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청소년들과 함께 그려보는 제주의 내일'을 주제로 한림공고 2학년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진행 - 제주도는 하원 테크노캠퍼스를 민간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혁신 비전을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도입, 2035 탄소중립 달성,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 등으로 확장 - 한림공고는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되어 향후 5년간 총 13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지역 맞춤형 항공우주 교육을 실시할 예정.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업이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대표 항공우주 인재 양성기관으로 발전시킬 계획
		□ 사천시지도사회 "우주항공청 신청사, 용현행정타운에 건립해야"(2024-12-10) - 우주항공청 신청사 위치 선정 발표를 앞두고 사천지도사회가 용현행정타운 건립을 촉구.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산 · 학 · 연 · 관이 집적되고 자족 기능을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 - 사천시청 주변을 종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하고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산업단지를 복합산업용지로 발전시켜 행정 · 산업 · 주거 · 문화 · 관광이 어우러진 자족형 도시를 완성하자는 구상을 제시 - 우주항공청의 신청사 입지가 '용현행정타운'으로 결정되어 행정과 산업, 주거가 집적된 생태계를 조성해야만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
		□ 창원특례시, 548억원 투자로 항공 · 우주 · 수소산업 확장(2024-12-11) - 창원특례시가 3개 기업과 548억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 산업단지 등지에 투자하고 74명의 신규 인력 채용 예정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우주	지방	- 넥스탑코리아는 수소를 활용한 항공우주 핵심 소재 제조 기술 개발을 위해 생산공장 신설. 현진이엔피는 수소 인프라 활용이 용이한 창원으로 생산시설 이전해 사업 확장 계획 - 이레산업은 동전일반산업단지로 사업장 이전하면서 항공·방산 분야로 신규 사업 확장. 창원시는 기업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 경남도 "2025년 국비 9조 6082억원 확정...SOC·우주항공 강화"(2024-12-11) - 경남도의 2025년 국비 예산이 지난해보다 2.1% 증가한 9조 6082억 규모로 확정됨.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로 결정 - SOC 분야에서 남부내륙철도, 함양~울산 고속도로, 진해신항 건설 등이, 우주항공 클러스터사업으로 우주환경시험시설, 위성개발혁신센터 등이 포함됨 - 원전, 방산, 콘텐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포함됐으며, 우주항공 농식품 육성 등 신규사업도 반영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반영 안 된 사업은 추경이나 내년 예산안에 준비할 계획
		□ 대전시, 우주산업 중심도시로 도약... '스페이스 스타트업 서밋 2024' 개최 (2024-12-11)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스페이스 스타트업 서밋 2024'에서 우주 스타트업의 도전정신과 혁신을 강조. 우주산업 미래를 이끌 스타트업이 한 자리에 모여 가능성 논의 - 장호중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은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대전의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에 적합한 인프라와 연구역량을 강조 - 대전은 정부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과 함께 스타트업 육성 지원책 마련 중. 대덕특구의 연구인프라를 활용해 기술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 동시 추진할 계획
		□ "우주항공 스타트업 집중 지원" 10살 대전혁신센터 96개 투자사·기업·기관 등친 '얼라이언스' 출범(2024-12-11)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우주항공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힘. '스페이스 스타트업 서밋 2024'에서 96개사가 참여하는 '스페이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 - 컴퍼니케이 이강수 대표는 우주항공 분야 투자는 증가 추세이나 전반적인 투자시장은 침체되고 있다고 진단. 기업들의 신중한 자금조달과 생존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 - 스타버스트 쇼파르 대표는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산업의 혁신을 강조. 앞으로 우주산업은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국가기관	□ 배터리안전 · 차세대 핵연료 · 액체수소운반선, '초격차 프로젝트'에 추가 (2024-12-05) - 산업통상자원부가 배터리 안전, 차세대 핵연료, 액체수소 운반선, 산화 갈륨 반도체를 초격차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추가. 2026년에는 반도체, 로봇, AI 분야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할 계획 - 2026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해외기술을 도입하고 내재화하는 전략을 도입 예정. 현재 713개 과제 5600억원이 투자되고 있는 초격차 프로젝트를 확대 - 2025년에는 약 1190개, 8500억원 규모의 신규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며, 초격차 프로젝트 이행, 산업 난제 극복, 소재 · 부품 · 장비 내재화, AI를 활용한 제조 · 연구개발 등이 주요 과제
	지방기관	- (해당 없음)
UAM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우주	국가기관	□ "우주항공청 본청, 사천 용현면이 적지"(2024-12-11) - 우주항공청 본청사 입지 선정을 앞두고 사천시지도자회가 용현면이 적지라고 주장. 시청 주변을 종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하고 우주항공청이 입지해야 한다고 강조 - 사천시청과 행정기관이 집적된 용현행정타운에 우주항공청이 위치해야 산 · 학 · 연 · 관 집적 생태계가 형성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입장 표명 - 정치적 목적이나 지역이기주의로 우주항공청 입지가 사천시 경계 지점에 근접하게 되면 사천시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국가기관	□ 우주항공청, 내년 예산 9649억원...올해 대비 2051억 ↑ (2024-12-11) - 우주항공청의 2025년 예산안이 9649억원 규모로 국회 의결을 통과함. 올해 대비 27% 증액된 규모 - 우주청은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차세대발사체 개발, 첨단위성 개발, 달착륙선 개발, 항공산업 핵심기술 자립화 등 5개 분야에 집중투자 계획 - 윤영빈 우주청장은 2025년 예산이 민간 주도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 한국세라믹기술원, 경남 우주항공 산업 성과 발표회(2024-12-11) - 한국세라믹기술원은 경남도, 진주시, 사천시 지원 사업인 '2024년 우주항공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소재 활용 사업화지원사업' 성과 발표회 개최 - 세라믹기술원의 전문 연구진이 우주항공용 소재부품 기업에 1대1 매칭되어 시제품 제작부터 평가, 인증까지 전 과정 지원.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수혜기업들의 매출 성과가 발표되었으며, 향후 우수 시제품에 대해 감항 인증 등 상용화에 필수적인 인증 획득 지원 추진 예정. 지역 우주항공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우주	지방기관	□ 전남테크노파크, 금속·화학·세라믹·우주항공·에너지·스마트팜 등 9개 특화센터 운영(2024-12-10) - 전남테크노파크가 소재기술지원본부와 융합기술본부 산하에 총 9개 센터를 운영. 전남의 대표산업인 금속, 화학, 세라믹 등의 소재·가공 산업과 신성장 동력산업인 우주항공, 조선, 에너지, 스마트팜 등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지원 체제 구축 - 우주항공산업센터는 고효율드론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첨단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드론기업 기술혁신을 선도. 도심항공교통(UAM), 우주발사체 관련 신규 사업도 기획 중 - 각 센터들은 분야별로 특화된 역할을 수행하며, 에너지산업센터는 수전해 시스템 성능시험센터 구축, 스마트실증산업센터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운영 등을 담당하여 지역 산업 발전을 지원

□ 민간 및 기타(포럼, 세미나, 토론회 등) 동향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 현대차, 수소트럭 美메타플랜트에도 투입...오스카 권 CEO "깨끗한 물류를 위한 결정"(2024-12-06) - 현대자동차그룹이 대형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 21대를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투입. 차량은 현대글로비스 아메리카 소속으로 HMGMA의 운송업무를 담당할 예정 - 엑시언트는 공급업체에서 메타플랜트로 부품을 운송하는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며, 점차 운송 범위를 확장할 계획. 메타플랜트에는 이동식 수소 충전소도 설치될 예정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민간기업	- 현대차는 올해 초 CES 2024에서 새로운 수소 가치 사슬 사업 브랜드인 HTWO를 발표했으며, 이는 그룹의 사업과 계열사를 포괄하는 전 분야에서 수소에너지 활용에 매진하는 것이 골자
		□ 화석 대신 '수소환원 원리'로 철 생산, 탄소 배출 획기적 절감(2024-12-08) - 철강 산업은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저탄소 또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철강 생산 방식에 관심이 증가 - 수소를 활용한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철강업계뿐 아니라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실정 - 포스코는 2019년부터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며,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음. 수소환원제철소가 상용화되면 한국은 탄소 배출 감축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전망
		□ '넥쏘' 수소용기 독점공급... 일진하이솔루스, 내년 흑자 노린다(2024-12-09) - 일진하이솔루스는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에 수소용기를 독점 공급하며 내년 흑자 전환을 노림. 정부의 수소버스 확대 정책에 발맞춰 상용차 시장 공략도 강화할 계획 - 글로벌 수소시장 성장에 따라 수소용기 수요 증가가 예상됨. 회사는 지난해 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년 넥쏘 차세대 모델 출시와 상용차 부문 확대에 반등을 기대 - 일진하이솔루스는 튜브트레이일러 등 수소 운송·저장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삼성중공업과 수소선박 개발 협력도 진행 중임. 수소경제 활성화에 발맞춰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갈 전망
		□ 주목도 높아진 '수소'...선제적 투자하는 '정의선-아키오' 헤안(2024-12-10)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수소에너지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운송분야에서 수소연료전지차, 수소기반 합성연료 등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 현대차그룹과 토요타는 수소를 미래 먹거리로 삼고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음. 필요에 따라 양사의 협력도 예상 - 현대차그룹은 수소연료전지 등 기존 역량을 토대로 모빌리티 전반에 수소기술을 확대 적용하고 있음. 토요타는 수소 합성연료인 이퓨얼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실정 - 수소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양사가 협력할 가능성이 제기됨. 업계는 두 기업의 선제적 수소 투자가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
	대학교	□ 송창용 국립목포대 LNG-수소극저온시스템연구센터장 "한국형 LNG 화물창 제조기술 확보 최선"(2024-12-11) - 송창용 센터장은 한국형 LNG 화물창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세 프로세스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확립하고 목업 시험을 공동 추진 중이라고 밝힘. LNG 화물창 성능 시험평가 및 인증을 통해 한국 LNG 화물창 사업의 기술 자립에 기여할 계획 - 한국 조선해양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LNG 선박 화물창 분야에서는 기술 자립이 시급함. 센터는 그동안 대형조선소, 부품소재 및 장비업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한국형 모델의 세계시장 진입을 위해 노력해 옴 - 송 센터장은 전남권 조선해양 미래인재 양성, 한국형 화물창 성능평가 기반 구축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 센터가 세계적 LNG 단열시스템 종합지원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중소협동조합 설립 요건 '50→30인' 완화...수소전문기업 인정 매출액 기준 개선(2024-12-05) - 중소기업협동조합 발기인 수 요건이 전국조합 50명에서 30명, 지방조합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 이와 함께 수소전문기업 인정을 위한 매출액 기준 등 지정요건도 개선 - 기존 수소전문기업 매출 비중 기준이 1000억원 미만은 20%, 그 이상은 10%였던 것을 절대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 혁신 역량 및 수주 실적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 - 화물운송 총량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화장지 관련 환경표지인증도 간소화. 방위산업 관련 규제도 개선하여 그린벨트 내 국방시설 및 군사시설 조성 절차를 간소화 □ LNG-수소극저온시스템연구센터 "K-조선해양 차세대 미래 기술 선도" (2024-12-11) - 최근 고유가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친환경 선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LNG선 수요 증가. LNG선은 기존 연료 대비 30%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 - LNG선의 핵심 기술은 극저온 화물창의 단열 시스템. 국내 조선사들은 멤브레인형 화물창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원천기술은 프랑스 GTT사가 독점 - 전남 영암에 개소한 국립목포대 LNG-수소극저온시스템연구센터는 한국형 LNG 화물창의 실증 기능 확보를 위해 설립. 화물창 성능 시험평가 및 인증 등을 통해 한국 LNG 화물창 사업의 기술 자립에 기여할 계획
	민간기업	□ "지역 우주산업 성장하려면 '부산샛' 후속 사업 계속 나와야" [인터뷰] (2024-12-09) - 나라스페이스 박재필 대표는 한국천문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해양관측 전문 초소형 위성 '부산샛'의 후속 사업이 계속 이어져야 지역 우주산업 생태계가 구축된다고 강조. 부산시의 우주산업 얼라이언스 발족 이후 구체적인 후속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UAM		계획의 필요성을 제기 - 2015년 3월 창업한 나라스페이스는 2019년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후, 부산 해양관측 특화 초소형 위성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 상업용 초소형 지구관측 위성 '옵저버 1A호' 발사에 성공 - 넓은 지역을 한 번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나라스페이스의 초소형 위성 기술을 활용해 부산의 해양, 환경, 교통, 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인사이트를 제공할 계획.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여러 회사와의 협력을 추진할 예정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플라잉카 · UAM 덕분"...전고체 배터리시대 곧 온다(2024-12-09) - 전고체 배터리의 글로벌 수요가 저고도 항공 기술 발전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0.6GWh에서 2035년 302GWh까지 503배 성장이 예상 - 저고도 항공은 전기차, ESS에 이은 배터리 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 중임.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플라잉카와 eVTOL 개발에 투자하고 있음. - 전고체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밀도, 안전성, 출력, 초고속 충전이 가능해 저고도 항공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기술로 평가 - 중국은 저고도 경제를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이며, 정부 지원과 배터리 기술력으로 세계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음. 국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UAM용 배터리를 공동개발
우주	민간기업	☐ 아이엘사이언스 "실리콘 미세가공과 전고체 배터리 기술로 우주용 배터리 안정성 강화"(2024-12-05) - 아이엘사이언스가 실리콘 기반 미세가공 기술과 소형 전고체배터리 기술의 융합을 통해 우주용 배터리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신기술을 개발. 실리콘 렌즈 제조기술을 활용해 미세한 선폭과 두께 구현이 가능한 소형 배터리 패키징 보완 기술 확보 - 실리콘 고무의 내열성을 활용해 전기차 화재 문제 개선에도 적용되고 있는 이 기술은 우주 공간과 같은 극한환경에서도 보조전원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 - 회사는 기존 실리콘 기반 제조기술을 모빌리티 램프 제조업뿐만 아니라 내열성 및 안정성이 필요한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장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 우주 모사 환경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
	민간기업	☐ 보령, 美 우주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에 140억원 투자(2024-12-05) - 보령이 미국 달 착륙선 개발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에 1,00만달러(약 140억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원)의 전략적 투자를 결정. 6,00만달러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클래스A 보통주 95만2,81주를 취득하며, 이는 전략적 협업 강화를 위한 투자로 설명 - 인튜이티브 머신스는 올해 2월 첫 달 착륙선 임무 'IM-1'을 통해 달착륙선 노바-C를 달에 보냈으며, 내년 2월 두 번째 임무를 준비 중. 보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이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달 환경에서의 생명과학 연구 인프라 구축 방안을 검토 - 보령은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우주 의학연구와 한국의 심우주 탐사 임무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 '휴먼스 인 스페이스'(HIS)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우주 의학 수요를 확인했고, 인튜이티브 머신스의 인프라를 활용해 우주 의학 연구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
		□ 키프코우주항공, '위성 간 레이저 통신 단말' 개발 계약 체결(2024-12-05) - 키프코우주항공이 한화시스템과 '위성 간 레이저 통신 장비, 위성 지상 간 통신 단말 개발' 및 '군위성통신체계 II 운송용 통신 단말 추가 양산' 계약을 체결. 위성 간 레이저 통신 기술(ISL)은 데이터 전송 지연 시간을 크게 줄여 실시간 위성 인터넷 서비스에 효과적인 기술 - 키프코우주항공은 저궤도위성 위성 간 통신 사업의 3대 핵심 기술 중 하나인 PAT(Position Acquisition Tracking) 모듈 개발을 담당. 1989년 국일정밀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위성통신, 레이더, 전자광학장비 제조업체로서의 전문성을 활용 - 현재 차세대 다기능 무전기, TACAN 항법 장비, K2 전차 조준경 모듈을 양산 중이며, KF-21 탑재 전자광학장비 초도 양산도 준비 중. 특히 지난 11월에는 디에스전자의 레이더 TRM 송수신모듈 사업을 인수하여 레이더 수출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美우주국도 접수한 스페이스X...NASA 수장에 '머스크파' 아이작먼 (2024-12-05)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재러드 아이작먼을 미 항공우주국(NASA) 수장으로 지명 - 아이작먼은 결제업체 시프트4 페이먼트와 전투기 공급업체 드라켄 인터내셔널을 설립한 후, 스페이스X와 협력하며 우주비행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냄. 앞으로 두 번의 추가 폴라리스 우주비행을 계획 - 외신들은 트럼프가 머스크의 우군을 NASA에 앉혔다고 평가하며, NASA의 정책과 계약에 있어 아이작먼이 스페이스X에 혜택을 줄 것이란 우려를 제기. 연간 약 250억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는 NASA 수장으로서의 영향력이 주목
우주	해외	□ 트럼프 2기 우주 프로그램, 억만장자 기업가가 이끈다(2024-12-05)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40대 초반의 억만장자 기업가 재러드 아이작먼을 연간 250억달러 규모의 미국 항공우주국(NASA) 차기 국장으로 지명. 뛰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어난 사업가이자 자선가, 조종사, 우주인으로서의 경험을 높이 평가 - 아이작먼은 1983년생으로 고등학교 중퇴 후 시프트포를 설립해 성공한 기업가이며, 2021년 최초의 순수 민간 우주비행팀 인스피레이션4를 조직하고 올해 9월에는 최초의 민간 우주유영에도 성공 - 아이작먼과 머스크의 긴밀한 협력 관계로 인해 NASA의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서 스페이스X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특히 달보다 화성 탐사에 중점을 두는 머스크의 '화성 직행' 구상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기타	□ 북, 미우주군 전진 배치에 "무력 충돌 위험 접근"(2024-12-07) - 북한이 일본에서 '주일 미우주군' 발족에 대해 군사적 긴장 수위를 충돌 위험에 접근시키는 조치라고 주장. 조선중앙통신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연구사 리성진의 글을 통해 이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우주군 무력의 전진 배치'로 비판 - 미국의 무책임한 행태로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넘어 우주 공간으로까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비난. 워싱턴의 패권 추구 책동의 일환이라고 지적 - 미국은 지난 4일 주일 미우주군을 발족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지역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실제적인 무력 충돌 위험으로 접근시키는 새로운 불안정 요인이라고 강조

-끝-